

제28회 한국어린이도서상 저작부문 수상, 동화작가 유은실

# 낮선 형식을 만날 때 문학적 다양성 성장한다

글\_송보경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여러 가지 기법의 밀도 있는 동화를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낮선 형식을 많이 만날수록 다양한 문학적 형식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미래 독자를 위한 문학 이슈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 10월 5일 열린 스물한 번째 책의 날 기념식에서 동화집 《만국기 소년》으로 제28회 한국어린이도서상(저작 부문)을 수상한 동화작가 유은실 씨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 동화가 여전히 ‘불편한’ 작품으로 치부되는 편견에 대해 작가로서의 소회를 밝혔다.

전학생 진수의 어려운 가정 형편을 화자인 ‘나’가 한 발짝 떨어진 시선으로 담담히 풀어낸 표제작 〈만국기 소년〉은 “인물의 심리를 섬세하고 절실하게 그려냈다”는 심사평을 얻었다. 이밖에도 〈선아의 쟁반〉 〈어떤 이모부〉 〈맘대로 천 원〉 등 《만국기 소년》에 실린 9편의 작품을 살핀 독자라면 “동화 읽기에서 소설 읽기로 넘어가는 연령의 어린이 독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드넓은 문학의 세계에 빠져들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몫이 크리라고 여겨진다”는 심사평에 이견이 없을 듯 하다.

“초등학교 5, 6학년은 대상으로 썼어요. 아동문학 안에도 문학을 알아보는 고급독자가 존재합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 시, 소설, 단편영화를 보는 어른이 되면 한국 문화를 이끄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동화가 모든 수준을 맞추려 하니까 이런 어린이 독자들이 없는 점도 많은 것 같아요.”

2004년 〈창비아린이〉 겨울호에 단편 〈내 이름은 백석〉으로 등단한 유은실 작가는 장편동화 〈나의 린드그렌 선생님〉와 〈우리 집에 온 마고 할미〉의 여러 편의 단편동화를 발표했다.

“생의 슬픈 진실을 이렇게 빨리 말해도 될까 하는 작가적 고민을 늘 하게 됩니다. 동화는 작가가 바라보

고 느끼는 세상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아름다움’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재미



있으면서도 아이들이 책에서 의미있는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작품을 쓰려고 합니다.”

초등학생을 위한 단편동화와 청소년 소설을 준비중인 작가는 “어린이 독자 스스로가 책을 통해 자신의 환경과 동질감을 느끼고 안도하게 되는 경험을 전달하는 것이 아동 문학의 희망”이라며 작가관을 전했다. ■

